

인생은 정상을 향하는 하나의 긴 과정



교장 한수영

우리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한 도전정신이 갖는 경쟁만이 강한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공(莊公)은 항상 부국강병으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꿈꾸던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가기 위해 수레를 타고 행차했는데, 모든 백성들은 길가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으나, 길 중앙에서 사마귀라는 벌레 한 마리가 도끼 같은 두 다리를 들고 임금의 수레를 향해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임금 장공에게 「사마귀는 앞으로만 나갈 줄 알고, 뒤로 물러설 줄은 모르는 벌레인지라 제 분수를 망각하고 함부로 덤벼들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신하의 말에 장공은 「참 재미있는 벌레로다! 사람 같으며 천하의 용사겠구나.」라고 말한 뒤 그 사마귀를 피해 길을 갔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소 무모한 도전과도 같은 상황을 설정해서 참된 용기와 진정한 도전정신을 일깨워주는 고사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유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무모하게 허세를 부리는 상황」이나 「약자가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상황」을 뜻하나 사실은 참된 용기와 도전정신의 표본으로 지칭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과 능력으로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일에 도전해서

성공의 길에 올라서는 상황과 인물을 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은 또한 필연적인 일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공시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광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 가지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꾸준한 노력으로 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좌절의 시점에서 더욱 더 분발하여 정상을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여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일쑤지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상을 향하는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시행착오로 인한 실패의 괴로움으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딛고 일어서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 보일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는 일은 조심해야겠지만, 항상 미래를 개척하고 진보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한 인항인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